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22 상반기 제19호

발행 한국관상지원단
Tel_ 02-421-1968

편집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796, 지층 1호
홈페이지_ www.centeringpray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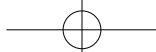
E-mail_ koreacontout@naver.com

세상의 변화를 향해

요한 1,1-14 묵상

소식지 17권 1호, 2003년 봄/여름,
토머스 키팅/ 이청준 역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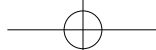
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빅뱅 : 요한 복음이 탄생된 공동체에는, 자기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수준 높은 관상가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현대 과학은 이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은 물론 빅뱅에 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빅뱅이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응축된 물질과 열의 대폭발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의 첫 추진력은, 빛을 포함하여 범위 내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우주의 모든 블랙홀의 에너지를 담고 있을 정도로 응축되어 있었다.

빅뱅을 일으킬 강한 힘 ; 영원한 말씀의 전능한 진동 :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밀도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물질이 모든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하여, 결국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되게 한 ‘훨씬 더 큰 힘’이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그 힘은, 말하자면 창조의 지극히 짧은 첫 순간에 존재했던 ‘측량할 수 없는 응축된 물질’보다 더 큰 힘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이것은 무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을 불러내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의 전능한 진동이다. 말하자면 빅뱅의 ‘거대한 인력을 폭발’시킬 만큼 강한 힘이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말씀의 계속되는 진동에” 접촉하라는 초대 : 피조물이 진화되고 생명이 출현했지만, ‘말씀의 첫 진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접촉한 ‘말씀’이다. 이 말씀의 몸은 우주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또는 인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엄청난 에너지에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권하신다. 마태 6,6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를 하려면”,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무한한 원천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존재의 영적 차원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문 닫기 : 초기 사막 교부들에 의하면, “문을 닫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 대부분에게 밤낮으로 일어나는 내적 대화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외적 세계와 내적 대화의 소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빛과 생명과 사랑의 미세한 움직임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숨어 계신 아버지 :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사랑 깊은 창조주이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이다. 향심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이 초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화시킨 것이다. 영원한 창조의 말씀은 최초의 소리로서 모든 피조물을 꿰뚫는다.(우리도 고요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기도의 궁극적 은밀성은 아버지의 은밀성 혹은 숨어계심과 다르지 않다.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존재하시는 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골방에서의 신적 치유, 신적 활동의 과정 : 그러므로 향심기도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 자신의 내적 대화와 관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버린다.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거짓 자아와의 과잉 동일시를 버린다. 이러한 과정은 신적 치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일어나는 신적 활동, 즉 우리의 이상화된 자아상의 착각을 치료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초대한다. 이 착각은 일상에서 안전, 애정과 존중, 지배에 대한 본능적 욕구에 기초한 정서적 행복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된다.

침묵 경청 ; 생각으로 표현되거나 개념으로 옮기기 전의 하느님 말씀 경청 : 거룩한 단어는 생각의 대체물이 아니다. 향심기도 수련에 온전히 들어서기 위한 핵심적 태도는 생각들 너머에 있는 ‘침묵’을 경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각으로 표현되거나 개념으로 옮겨지기 전의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차원의 경청은 우리를 다양성의 지배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물론 다양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언제나 현존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양성과의 과잉동일시다. 성 바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을 가리킨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인성을 가리킨다. 동시에 그는 삼위 안에 성부의 표현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

영원한 말씀 체험 ; 신적 내주 체험 ; 온갖 특정 체험을 초월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신적 내주를 선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은 온갖 특정 체험을 넘어선다. 믿음으로 영원한 말씀에 다가감으로써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 맺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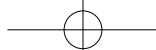
영원한 말씀 ; 골방에서는 모든 것을 너머, 골방에서 나와서는 모든 것 안에서 :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의 가치와 성령의 해방 활동으로 충만한 채 향심기도에서 나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와 모든 것 안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 말씀은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한다. 차츰차츰 우리는 현재 순간의 직접적 내용물 안에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이 신적 현존을 알아차리게 된다.

파스카 신비 ; 향심기도 초점, 하느님의 가장 심오한 계시 : 향심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내가 방금 설명했던 창조의 '말씀'에, 특히 파스카 신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저승에 내려가심, 부활과 승천에 맞추어진다. 파스카 신비에서 하느님이 가장 심오하게 계시된다.

규칙적인 향심기도 : 일상 생활에서 향심기도를 규칙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한결 빨리 이 생명의 차원에 다가갈 수 있다. 파스카 신비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우리 기능들을 이 계획에 참여시켜서, 적어도 그 기능들이 자기 한계를 깨닫고 신적 실재의 현존 속에 고요히 머물 필요성을 받아들이게는 한다.

파스카 신비와 신적 일치 : 그리스도께서는 저승에 내려가심으로써, 우리 개인의 역사, 전체 인생사, 모든 상처, 죄, 실패, 낙담, 그리고 온갖 재앙들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셨다.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느끼는 우리의 고통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결합시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신적 일치는 개인의 성취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적 일치는 우리 자신과 전체 개인사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불안이나 자기 비난 없이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완전한 무기력의 순간에 그리고 거짓 자아가 획득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실패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고통에 빠진 우리와 결합하시고 그 고통을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구원으로 변화시키신다.

관상기도를 통해 사랑의 신비 안에서 상호 연대 : 우리는 모두 하나의 똑같은 원천에서 나왔으며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모든 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모든 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인



의 덕행은 그 사람의 것인 만큼이나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가 사랑의 신비 안에 함께 있으며, 그 신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 어떠한 다른 방식보다도 자비를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다.

영원한 말씀의 현존 감지 ; 사물의 소유욕에서 해방 : 생각과 느낌과 개념들이 기도 중에 떠올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갖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잘못된 그것들에 동화되는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일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성 자체의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소유욕이다. 다양성 안에서의 근본적 통일, 즉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영원한 말씀의 현존을 감지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해방되어 하느님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 바오로가 말하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일상 생활과 일상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며 전 인류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려는 의향의 표현이다.



향심기도는 타인과 전 우주와의 유대로 이끌며,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사건에 동참하라고 초대한다.

타자가 있음 ; 하느님의 존재 각성 ; 죽음 수용을 통해 하느님 수용 : 요약하면, 영적 여정의 첫 단계는 ‘타자’가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한 종족의 일부로 만드신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포함하여 그 결과들에 복종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



고 일상 생활의 작은 죽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타자가 되는 것 ; 그리스도를 본받음 : 영적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수련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간직되어 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와와의 결합으로가 아니라, 결합을 넘어선 곳,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서 최후만찬 때 마지막 기도에서 초대하신 곳으로 이끈다. “아버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1) 성삼의 일치는 절대적이고 무한하다. 창조의 말씀이 인류 일치의 근간이 된다. 피조물 안에 있는 온갖 다양성도 그 일치를 결코 바꿀 수 없다. 다양성 안에 있는 신적 현존을 끌어안음으로써 우리는 소유욕에서 해방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소유욕도 마찬가지다.

궁극적 딜레마 ; 하느님의 아들로써 정체성 상실, 죄가 되심 ; 자아 정체성을 놓아버리도록 초대 ; 참자아의 내적 부활 :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저승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써의 당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하다. 이것은 거의 불가해한 승복이다. 당신의 가장 내밀한 존재로는 그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이다. 바오로에 의하면, “그분은 죄가 되셨다.”(2코린 5,21)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정반대가 되셨다. 이것이 궁극적 딜레마, 곧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 속으로 우리를 빠뜨린 궁극적 양극화다. 하지만 영적 고통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신비 속으로 이끈다. 예수님의 정체성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거짓 자아뿐 아니라 자아 정체성 자체를 놓아버리라고 초대한다.

향심기도를 하면서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참자아의 내적 부활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타자가 없음 ; 영원한 말씀을 궁극적 원천으로, 가장 깊이 존재하는 것으로 체험 : 영원한 말씀을 우주의 궁극적 원천으로, 모든 것 안에 가장 깊이 존재하는 것으로,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거나 개념화할 수 있는 모든 것 혹은 감각을 넘어서는 분으로 체험하는 것은, ‘타자’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바오로가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콜로 3,11)라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계시는 신적 현존에 대한 깨달음을 유지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어느 누구도 그분께 드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자신의 유일무이성을 체험하신다.



사라의 권고

소식지 25권 1호, 2009년 12월, 토머스 키팅/ 이청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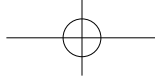
관상 지원단 2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길을 걷는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당신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키팅 : 이 길을 걷는 동안 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상황은 많았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추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끝에 가면 그 의미가 드러날 터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 1983년 8월 첫 번째 라마 피정 때, 우리의 식사는 공동체 주방에서 만들어져 500미터 떨어진 복도에 차려졌습니다. 피정 집 안에는 식탁과 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팻과 밥 존슨 부부는 라마 공동체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팻이 음식을 요리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존슨 부부에게는 '사라'라는 전신 불구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개월 되었을 때 포대기에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이십사 시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팻은 심화 피정을 좋아했습니다. 팻과 밥은 라마에서의 두 번째 피정 후 스노메스로 이사했습니다. 스노메스에서 여러 차례 심화 피정을 했을 때, 팻은 수도원 내 오래된 농가에 사라를 데려가 자신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 아이를 거실 소파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1996년에 우리가 새 피정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녀는 사라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 갖는 모든 이를 환영 : 사라는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라는 일생 동안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때때로 그 아이는 큰 웃음소리를 내거나, 더 정확히



말해서 귀청이 터질 만큼 큰 기쁨의 소리를 내지르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때문이었겠지요!
사지가 뒤틀림 : 팻과 밥은 처음 몇 해 동안은 아이가 걷거나 적어도 기는 법을 가르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유명한 재활 센터들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다 데리고 다녀야 했고 모든 일을 대신 해주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사지를 아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봉사자의 일원 ; 피정의 의미, 그저 있는 것 ; 삶을 경축하기 : 사라는 피정자들에게 멋진 존재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일종의 미묘한 소통을 나누면서 그 아이와 한두 시간 동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사라를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고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차츰 봉사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라를 거기 있기만 했습니다. 사라를 많은 참가자들에게 피정의 의미, 곧 그저 있는 것의 본보기를 완벽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의 공헌은 활동이나 성취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경축하는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사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삶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지녔을 뿐이었지만, 그것도 여전히 삶이었고 단순하면서도 멋진 삶이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 사라의 사지와 상체가 뒤틀리면서 폐가 점점 더 수축되어, 호흡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8천 피트 고도에서는 어쨌든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사라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이 받았던 그런 돌봄, 즉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몇몇 물리치료사나 의사들이 말했던 대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사라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라는 34살까지 살았습니다.

호흡에 가장 신경 씬 : 사라는 거의 항상 쾌활했습니다. 사라는 춤거나, 옮겨 주기를 원하거나 무언가 필요하면 심각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때 침을 흘리곤 했기 때문에, 호흡과 정확히 맞추어서 먹여주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호흡에 가장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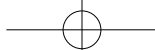
피정의 의미 : 내가 말했듯이, 사라는 피정이 의미하는 바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사라와 그녀의 쾌활한 표정을 바라보고는 직관적으로 피정이 존재의 문제라는 것, 곧 하느님 현존 안에 그저 머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 사라의 생애 마지막 해에, 그녀는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사라는 몇 차례 글렌우드 스프링스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마다 위기를 넘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 구비된 기구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펫과 밥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글렌우드 스프링스에 있는 밸리 뷰 병원에 데려갔으며 그녀가 떠나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항상 그들의 집에 있는 육화된 사랑과 같았기에, 그들은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결국 숨을 멈추었습니다.

밥은 그녀를 방부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라마에 묻으려고 시신을 모시고 재빨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달콤한 미소 : 그들은 그녀를 집에 데려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나의 협력자인 보니 쉬미쥬는 조의를 표하러 들렀다가 사라가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슬픔에 젖은 부모는 그녀를 차에 싣고 라마로 갔습니다. 때마침, 라마에는



그해 최고의 폭설이 내려 어떻게 그녀를 묻을지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라마에는 고인이 된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묘지가 있었고 때로는 외부인들도 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슨 부부가 라마에 도착하여 폭설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간신히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때마침, 평판 좋은 라마의 선생들 중 한 명이 사라가 죽기 몇 주 전부터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90대였고 회복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라마 묘지에 그녀의 무덤을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죽기 하루 이틀 전에 그 부인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무덤이 하루밖에 안되었고 눈도 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친구가 사라를 묘지에 신고 왔고, 그 선생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덤에 사라를 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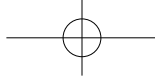
몇 주 후에 사라의 추도식이 수도원 경당에서 열렸습니다. 밥은 몇 마디 하기로 하였습니다. 맺은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숨 쉬기 : 밥은 사라가 죽은 후 며칠이 지나서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을 어떻게 메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상을 하다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한 번에 한 번씩 숨 쉬는 것일 뿐이야”

살아 있다는 것,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 나는 이 말과 그 탁월한 지혜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라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한 번에 한 번씩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로움에 휩싸인 아버지에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한 번에 한 번씩 숨을 쉰으로써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에 담긴 지혜 : 피정 때 부엌 식탁에 누워있던 사라가 이르렀던(깨달았던) 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력한 34년의 열매로서,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부모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향심기도의 엄청난 가능성; 아이콘 : 나에게 있어서, 사라는 향심기도 수련의 엄청난 가능성의 상징이자 아이콘입니다. 하루에 두 번 하느님 현존 안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를 신적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라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전 인류를 섬기려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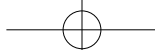


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하느님께서 관상지원단 공동체에 주신 으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대에서 떨어진 것 ; 누룩의 비유 : 그녀가 포대에서 떨어진 것이 비극이었을까? 누룩의 비유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 듯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 축제동안 그것을 가까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룩을 육체적, 영적, 도덕적 부패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다.”(마태 13,33) 엄청난 부패가 그 나라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하느님 나라로 만드느냐, 아니면 악몽으로 만드느냐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관상가들을 위한 사목 : 어떤 가족에게는 말 그대로 비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라의 사고가, 위대한 사랑에 의해 관상가들과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관상지원단을 위한 보물 ; 한 번에 한 번씩 숨을 : 내가 보기에, 사라는 하느님께서 관상 지원단 가족에게 주신 커다란 보물입니다. 그녀의 권고는 엄청납니다. 한 번에 한 번씩만 숨을!



일상 생활과 체험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한명숙 카타리나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는 하루를 봉헌하는 기도, 저녁에는 성찰하며 자신을 살필 때면, 늘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매일 아침과 오후에 향심기도 해온 지 20여년. 갈수록 나의 나약함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알게 하는 체험들을 하곤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길러주시는지 알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같다.

첫째, 집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성당이 있다. 나는 성당 가까이 살 집을 선택해서 매일 산책하다보니 눈 앞에 성당이 보인다. 거주지인 집과 중심인 성당 언저리가 마치 수도원인 듯 여겨진다. 이웃하는 분들은 모두 수도원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이며 자매다. 주위에 심어진 나무도, 고양이도, 돌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들이다. 매일 묵상을 하면서 운동하니 참 행복하다.

묵주기도를 할 때에도 성당을 향해 묵례하며 성모송을 바친다. 나의 꽃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이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에 성당이 코앞인데 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성당 문은 잠겨있어 성체조배도 할 수 없던 얼마간에, 매일미사에 참례하는 저는 방송미사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시기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 오래전부터 기도방에 성삼위 성상을 모셨는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가 되니, 갈망과 목마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상을 바라보고 마주하게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사로잡으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 머물게 하셨다. 성체를 영하지 못한 마음을 그 사랑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며, 말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더 이상 아쉬움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 처음에는 묵상, 대화 그리고는 대화를 넘어 말없이 침묵하면서 성삼에서 발휘하시는 사랑으로 호흡하고 저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 안에 내재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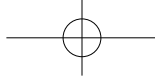


월하시는 하느님. 그 사랑으로 취해, 모든 것이 흡족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은 그 안에서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 매일미사를 참례할 수 있을 시기가 되니, 하느님 안에서 하루의 기도와 일상생활이 모여서 성당에서 본당 공동체가 전례를 통해 성경말씀과 더불어 성체를 받아 모시며 생명을 얻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함께 바쳐지고 나눈다.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생명수가 되듯, (에제 47.1.9)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집으로 생활로, 이웃과 함께 다시 일상의 생활로 시작된다. 매일매일 다시 또다시 행위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영혼은 새롭게 시작한다. 그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다.

셋째, 얼마 전에 눈 망막 수술을 했다. 수술 전에 많이 두려웠다. 눈에 직접 부분마취하고 수술하는 장면이 다 보이고, 민감한 눈에 직접 주사와 칼과 드릴을 사용한다니 아프지 않을지, 염려되고 두려웠다. 본당 교우들의 기도와 미사봉헌, 본당 신부님의 안수와 말씀 듣고 입원했다. 안정제도 투여해준다. 그런데 기도와 미사와 안수 덕분에 수술대기실에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현존이 크게 와 닿았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셨다. 하느님 현존을 인식하면서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이상 없었다.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스텝들의 대화도, 눈에 투입되는 도구들도, 수술하는 모습들을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끼고 있었다. 담당의로부터 환자분처럼 침착하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칭찬인지? 그런 말도 들으며 참으로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했다. 하느님께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다.

사실, 이런 일상의 생활과 체험들을 통해 얻는 것은 매일의 향심기도를 통해 내 안에 내주시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어 현존과 활동으로 현현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알게 하시는 것 같다.





Repent(회개)... 행복의 방향을 바꾸어라.

김정하 엘리사벳

1986년 12월19일

울산 성 바오로성당

어떤 목마름... 세례를 받은 후 접한 회개, 희생, 사랑, 피조물...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서 무지하게 어렵게 다가왔다.

미사 시간 때에는 주님께 집중하며 일어섰다.... 앉았다.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노래하고 이 순간은 나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과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달라진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웃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목에 걸렸다.

집안에서는 미사에 다녀오면 조금은 착해진다 고는 했다.

성경공부(나를 폭로하고), 그래도 달라진 건 없었다.

신학원 공부, 그래도 달라진 건 없었다.

나를 돕기 위해 영성심리 공부도 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었다.

향심기도 공부(Fr. Thomas Keating)

(아닌 척 하면서 나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마르코 공부를 하면서 돈의 순위는 완전히 제껴졌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순위

가 되셨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대화라던데 나는 매일 혼자 지껄이고 바랄 뿐 그분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 답답했다.)

“회개는 행복의 방향을 바꾸는 거란다.”

“기도는 관계이면서 훈련이란단.”

우와..... 완전히 알아들었다.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붓짐을 싸서 허리에 묶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지향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적치료(Divine Theraphy)를 받는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

차츰 자유로워지면서 짐은 가벼워졌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 내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한다.

나는 이제 나를 골똘히 쳐다보지 않는다. 그분만을 쳐다보며 희망이 가득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추신 : 향심기도 회원인 김정하 자매님의 글은 함안본당 주보에도 실렸던 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리며...

강영숙 효주 아네스

당신은 저의 피신처, 저의 방패, 저는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편112, 114)

언젠가 9박10일 피정 중에 이청준 신부님께서 토머스 키팅 신부님의 글 ‘사라의 권고’를 강의해 주셨다. 사라가 아빠에게 남겨 준 ‘한 번에 한 번씩 숨을’이라는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가왔었다.

언제나 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고 한숨을 돌린다. 아마도 지금이 나에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상의 불편함이 현실로 다가온다. 병원을 가도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구급차로 지방에서 올라와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병원 관계자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뿐..... 뉴스로만 들었던 현실이 나에게 그대로 닥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사나워진다. 그때 ‘사라’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한 번에 한 번씩 숨을”금새 터질 것만 같았던 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향심기도를 통해서 나는 매일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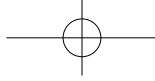
본성적으로 생긴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안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하며 걱정하지 마라(마태6, 31)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루카12, 22)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데 뭘 걱정하라!

향심기도 리플렛 맨 앞장에는 **“침묵, 고독, 봉사, 연대”** 네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토머스 키팅 신부님께서 2018년 10월 25일에 돌아가셨지만, 아마도 우리의 현



실을 예견하셨던 것 같다. 2020년 2월에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나는 네 개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

향심기도를 하면서 외·내적 침묵을 통해서 나의 내면으로 깊이깊이 스며들어 내 존재 안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낄 때 무력함, 나약함, 불안함을 바라본다. 외출할 때는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 절대자이신 나의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 나는 없음,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관상적 봉사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토머스 키팅 신부님의 말씀이 관상지원단 사무실에 걸려있다.

연대와 봉사(섬김)를 통해서 나의 하느님과 이웃의 하느님께서 같은 하느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소홀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불편함으로 남는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향심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일깨워주셨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봉사를 통해서 겸손과 배려를 일깨워주셨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 손을 잡는 방법임을 알려 주신 것이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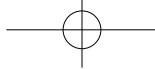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
에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피정 · 후속강의 및 심화피정 · 집중피정 ❖

피 정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2박 3일 소개 및 심화피정	5월 5일(목) 오후 3시 시작 ~ 7일(토) 오후 3시 마침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02) 421-1968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 후속강의에 참석하실 분들 &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10월 9일(일) 오후 3시 시작 ~ 11일(화) 오후 3시 마침				
3박 4일 심화피정	7월 1일(금) 오후 3시 ~ 4일(월) 3시 마침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9박 10일 집중 피정	11월 16일(수) 오후 4시 ~ 25일(금) 점심식사후 귀가				향심기도 3박 4일 피정을 3회 이상 하신 분들

피 정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소개피정	3월 5일(토)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 9825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4월 2일(토)				
	9월 4일(일)				
2박 3일 소개 및 후속피정	10월 1일(토) ~ 3일(월)				향심기도에 입문하실 분들 & 후속강의에 참석하실 분들 &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2박 3일 심화피정	6월 3일(금) ~ 5일(일)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사랑의 씨튼 수녀회	(041)733- 2992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11월 18일(금) ~ 20일(일)				
4박 5일 심화피정	7월 29일(금) ~ 8월 2일(화)				
향심기도 후속강의 8주 ZUM강의	4월//5일, 12일, 19일, 26일 5월//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 12시				
2박 3일 심화피정	4월 1일(금) 오후 3시 ~ 3일(일) 점심식사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사랑의 씨튼 수녀회	(041)733- 2992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2박 3일 환영의 기도	12월 2일(금) 오후 3시 ~ 4일(일) 점심식사				
4박 5일 심화피정	6월 23일(목) 3시 ~ 27일(월) 점심식사				



피 정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성 삼일 전례	2박 3일	4월 14일(금) ~ 16일(일)	(울산) 세 예루살렘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성령 강림 전례	침묵피정과 향심기도	6월 3일(금) ~ 5일(일)				
예수 성탄 전례		12월 23일(금) ~ 25일(일)				

❖ 월 쇠신의 날 ❖

피 정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쇠신의 날	1월 3일	매월 첫째주 월 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광주) 중흥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3632-0237	향심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
	2월 7일			자택 학습		
	3월 7일			이청준 신부		
	4월 4일			이청준 신부		
	5월 4일			이청준 신부		
	6월 7일			미정		
	7월 5일			마정		
	8월 2일			이청준 신부		
	9월 6일			정규완 신부		
	10월 4일			미정		
	11월 1일			친교의 날		
	12월 6일			정규완 신부		

〈월 침묵피정〉

피 정	일 시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침묵피정	3월	15일 22일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4월	12일 19일				
	5월	10일 17일				
	6월	14일 21일				
	7월	12일 19일				
	9월	13일 20일				
	10월	11일 18일				
	11월	15일 22일				
	12월	13일 20일				

※추신 ; 위에 나열된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등에 따라서 취소 또는 변경될 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지역	장 소	일 시	연락처	전화번호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김문희 엘리사벳	010-8917-4523
	*(성공회) 성 세례자요한 성당	목요일 오후 7시(zum기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새길교회	①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화요일 오후 7시		
		③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만수 6동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간석 2동	수요일 오후 7시(zum기도)	조에우제니아 수녀	010-3422-7587
경기	(남양주)마석 성당	①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② 목요일 오전 11시		
	*(고양)살림 교회	①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② 목요일 오후 8시 30분 (zum기도)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수요일 오후 8시	박성숙 헬레나	010-5404-7993
	진잠 성당 - 유아실	목요일 저녁미사후	황경해 아녜스	010-6630-6649
	궁동 성당 - 유아실	월요일 오후 7시	황경자 데레사	010-6888-0281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월요일 오후 7시	박정옥 소하데레사	010-8804-2160
	월평동 성당 - 성체조배실	수요일 오후 8시	송진희 미카엘라	010-6489-0600
	목천 성당 - 성체조배실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강기민 로사리아	010-4629-7312
	복수동 성당 - 성체조배실	화요일 오전 10시	배순희 아가다	010-6406-8506
	*(월모임) 월평동 성당-교육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3909-6649
청주	영운동 성당	화요일 오전 10시	우형욱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화요일 오후 2시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봉명동 성당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녜스	043)733-2795
	미원 성당	화요일 오전 11시	천경민 아가다	010-9408-9670
부산	좌동 성당	화요일 오후 1시	정예규 아녜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월요일 오후 1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목요일 오전 11시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범일 성당	금요일 저녁 8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화명성당	목요일 오후 2시	이은하 로사리아	010-4425-3508
	남산 성당	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김남희 도미니카	010-6757-8991
		② 금요일 오후 1시	윤순옥 모니카	010-9880-5005
	민락 성당	화요일 오전 11시	정미래 크리스티나	010-9222-8015



지역	장 소		일 시	연락처	전화번호
대구	황금동 성당		화요일 7시 30분 저녁미사 후	최석환 빈첸시오	010-3526-6611
	만촌3동 성당		①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②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박용희 세실리아	010-3511-8150
	본리 성당		목요일 저녁 6시	강 글라라	010-7298-0371
	(포항)대해 성당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심옥숙 아네스	010-6650-9870
경주	성동 성당 - 성당 2층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수요일 오후 5시	박창두 미카엘	010-5879-7527
울산	월평 성당		화요일 오전 11시 ~ 12시30분	박경희 마리아	010-8029-6329
	새 예루살렘공동체		저녁 오후 8시 ~ 9시	임정란 벨라데타	010-3834-4997
마산	(진주)하대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진주)금산 성당		수요일 저녁 7시	태광훈 스테파노	010-2831-4200
	(함안)함안 성당		목요일 오후 1시	김정하 엘리사벳	010-7207-4149
	(창원)사파동 성당		목요일 10시 30분	박선여 안젤라	010-9223-4595
	거제	장승포 성당	화요일 오전 10시	조영순 데레사	010-8531-2764
		옥포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김복순 아네스	010-9689-0072
		장평 성당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거창 성당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정아 아네스	010-5362-4644
광주	중흥동 성당		① 월요일 오전 10시	김영재 알로이시오	010-3632-0237
			② 화요일 오후 1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③ 화요일 오후 2시	김금숙 글라라	010-9509-8405
			④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김인심 라파엘라	010-5089-1204
			⑤ 목요일 오후 2시	김혜향 베로니카	010-2604-2072
	원동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류숙정 안나	010-9111-5878
	비아 성당		①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안은경 발렌티나	010-9885-8814
	옥과 성당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강성자 도미니카	010-9883-2309
	조례동 성당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김해현 가리따스	010-4569-9360
곡성 성당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최남숙	010-6780-2754	
전주	솔내 성당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황인자 엘리사벳	010-4662-1188
제주	연동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김영숙 키어스튼 마리아	010-6685-351
	제주교구 내 성당 (매월 정함.)		*월 피정의 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한국관상지원단이 설립된 지 23주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피정집 상황에 맞추어 인원수를 조정하여 25명씩 2박 3일 피정, 3박 4일 피정을 실시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9박 10일 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2021년 3월 5일 ZUM을 이용해서 화상회의(윤행도 대표 신부, 김병연 국장, 이사진 및 교수진 참석)로 몇몇 현안에 대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5일에는 미국관상지원단에서 실시하는 United in Prayer Day(UiP): '기도 안에 하나되는 날'에 전 세계가 나라별로 연대해서 24시간을 참여합니다.

한국관상지원단은 3월 5일 오후 3시(진행자: 김병연 요셉 국장)부터 1시간을 참가할 예정이니 각 지역에 계신 간사님들께서는 시간을 메모해 두셨다가 공지하셔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월 신간으로 '중독과 신적 치유'(DIVINE THERAPY & ADDICTION//토머스 키팅 저//이청준 역) 도서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관상지원단 (전화 (02)421-1968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naver.com)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 서울 지부 ■

2021년 서울 지부에서는 씨튼 영성센터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소개피정 및 후속 프로그램과 심화피정, 월 피정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과 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상황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심기도의 맥을 놓지 않으시고 도움 주신 씨튼 영성센터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모임은 씨튼 영성센터에서 봉사자 중심으로 유일하게 지속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기도를 하고 있으며, 씨튼 영성센터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모임 인원들을 중심으로 월 침묵피정도 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심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여 기도합니다.

■ 인천 지부 ■

간석2동 성당 : 비대면 향심기도를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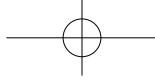
소기도모임으로 간석2동 성당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현

재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모임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공부와 기도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심기도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조 에우제니아(H·P : 010-3422-7587)수녀님께 연락을 드리십시오.

* 간석2동 성당 :

1. 평신도 비대면 향심기도 진행 모습





2. 수도자들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향심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1시간 중 40분강의, 20분수련, 6개월코스로 진행 예정입니다.



■ 대전 지부 ■

- 2021.6.16~7.21일까지 6회 후속강의 온라인으로 진행
- 2021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10시에 씨튼동반회 소기도모임 온라인 진행
- 이견종 목사 : 매주 토요일 저녁 소기도 모임 40주간 온라인으로 진행 (11.24~11.27 씨튼영성의집에서 피정으로 마무리 26명 참석)
- 2022년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된 소기도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 광주 지부 ■

1. 월새신의 날
 - 1) 일시
 - 매월 첫 월요일: 10:00~16:00 비대면 9회(SNS)
 - 매월 첫 월요일: 13:00~16:00 대면 3회
 - 2) 대면 3회 내용
 - 향심기도 강의주제: '침묵과 향심기도: 최창무 대주교
 - 향심기도 강의주제: '소개강의 요약: 이청준 신부
 - 향심기도 강의주제: '후속강의 1강: 이청준 신부
2. 향심기도와 침묵수련 업무광 편저 100권 재발행
3.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향심기도 특강 12회(강사: 김경순

수녀/장미자)

- 참석(총 98명:상반기 49명, 하반기 49명)
- 교육 참석한 비회원 대상 소개강의 실시

4. 교육

- 소개강의 2회: 평생교육원 일반회원대상 4명, 군산팀 3명
- 후속강의 1회: 군산팀 3명

■ 울산 지역 ■

울산지역 향심기도 소기도 모임(봉사자 박경희 마리아 010-8029-6329)은 기도 회원 22명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월평성당에서 2020년 1월 28일까지 4개월간 기도 모임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각자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2021년 11월 23일부터 열분의 회원이 왕영수 신부님을 모시고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12시30분에 기도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각자 집에서 공부한 다음, 모여서 나누고 신부님께서 끝맺음을 해줍니다. 특히 7장을 3주간에 걸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나눔을 통해 향심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성생활의 큰 축복이라고 느끼고 다짐하면서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공동체(봉사자 ; 임정란 벨라뎃다 010-3834-4997)에서는 공동체 식구들과 개인피정자와 함께매일 저녁 8시~9시에 성체조배와 향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다면 7월부터 매월 일일피정을 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2박3일 피정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 지역 ■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함께 향심기도하기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아래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 1) 공동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2~3시 : 제주시 연동성당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각기 떨어져 앉아 "개인적으로" 한시간씩 조용히 기도합니다.
- 2) 향심기도 관련 교재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8:30~9:40 토머스 키팅 신부의 글 모음집을 'ZOOM과 네이버Whale' 온라인을 열어서 읽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네이버 웨일로 토머스 키팅 저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읽기로 했습니다.
- 3) 피정 : 2021/6/25~27 : 서귀포'면형의 집'에서 제주향심 기도 회원 7인과 서울교구 회원 2인(봉사 : 이청준 신부) 이 <동 의와 승복>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했습니다.

***〈공지사항〉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에서 공지합니다!!!!**

1) 2022년 9박 10일 집중피정(11월 16일(수) 오후4시 등록 ~ 25일(금) 점심식사 후 마침)
9박 10일 피정을 하실 분들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전화: 02-421-1968)으로 참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2) 2022년 1월 신간 발행 안내

이 책의 원서는 'Divine Therapy and ADDICTION'(옮긴이 : 이청준 신부)입니다.

내용은 토머스 키팅 신부와 알코올 의존자인 저자가 8년에 걸쳐 나눈 대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알코올 의존자로서 1978년 10월 5일에 단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 등 각종 중독자들과 회복기 환자들에게 AA(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12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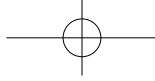


이 책의 본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회복기에 접어든 지 오래된 사람이든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사람이든, 금주하여 맑은 정신일 때 좌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체험했을 법하다. 관계 문제, 일 문제, 불안, 우울, 공허감 등등. 이런 느낌들은 회복기가 얼마나 되었든, 무엇에 중독되었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단계 11이 그 해결책을 제공한다.

향심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와 묵상에 젖어 들게 함으로써, 12단계의 적용, 특히 단계 11의 심화에 도움을 준다. 12단계의 실천에다 매일의 향심기도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영성에 개방될 것이다.

‘중독과 신적 치유’(토머스 키팅 저//이청준 신부 역)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전화: 02-421-1968) 또는 E-mail주소(koreacontout@naver.com)로 연락을 주십시오.



| 지부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	010-2948-3852
• 서울지부 한명숙 카타리나	010-8553-2374
• 인천지부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 대전지부 박봉석 세레자 요한	010-3909-6649
• 청주지부 연인래 아가다	010-9408-9670
• 마산지부 황혜순 올리아나	010-9667-8944
• 부산지부 류건희 아네스	010-9325-0006
• 대구지부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 광주지부 장미자 데레사	010-3632-0237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부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기로 투신하는 개인과 향심기도 그룹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naver.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은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